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5. 25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바이오신산업과
담당	과장 김연주, 신산업기반팀장 노경호, 담당 권호운(032-453-7363)

“핵심 기술 구축 사업 국가 공모 선정…커넥티드 카 거점 도약”

인천경제청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 산업부 공모 선정

총사업비 148억 투입…무선통신 성능 평가 시스템 등 구축

- 미래 자동차인 커넥티드카(Connected Car) 서비스와 관련한 핵심 기술 구축 사업이 국가 공모에 선정돼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청라국제도시가 이 사업의 우리나라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‘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’ 공모에서 ‘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’이 최근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.
- 이 시스템은 △커넥티드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의 성능 검증 시스템 구축, △무선통신과 연결된 전장품(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)의 인증평가를 위한 실제 자동차·부품 단위 기반 구축, △인증 평가와 기술개발·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기술 지원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.
- 시스템 구축에는 국비와 시비 등 총 148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4년까지 커넥티드 카 소재·부품 인증평가센터의 인증 평가에 필요한 시험·장비 구축 등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해 추진할 예정이다.

- 현재 청라 인천로봇랜드에 연면적 4,110㎡, 3층 규모로 올해 기본·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운영이 목표인 커넥티드 카 소재·부품 인증평가센터 안에 구축된다.
-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IFEZ가 글로벌 트렌드인 커넥티드카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차량 통신과 관련한 국산화 기술 선점으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.
- 특히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과 관련한 장비 구축을 통해 설계-검증-인증-실증 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가능해 국내 기업의 기술 선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-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“현재 전 세계적으로 5G 서비스 상용화, 카셰어링(차량공유제)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커넥티드 카의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것은 IFEZ가 커넥티드카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앞으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, 관련 신산업 성장과 신시장 창출을 이끌겠다”고 밝혔다.
- 커넥티드 카는 정보통신기술(ICT)을 이용, 정보를 송·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미래 자동차다.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하며 다른 차량은 물론 모든 사물 간 통신 연결이 가능해 안전주행 정보 등 운전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정보가 제공된다.
- 커넥티드 카 관련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로 사용된다.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단말, 도로 기반 시설 등과 충돌 경고 신호, 교차로 통제 정보 등을 주고받고, 교통 센터에서 교통안전 지원, 실시간 길 안내, 차량 점검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.